

보성군 “내년 ‘청림·민생·관광’ 3대 축 완성의 해로”

본예산 7천억원…맞춤형 복지 강화

출생기본소득 도입·말차·키위 육성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체질 개선도

보성군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민선 8기 성과를 집대성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완성의 해’로 만들기 위해 도약에 나선다.

30일 보성군에 따르면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청림·민생·관광’ 등 3대 핵심 가치로 두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종합 실행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해 군은 지난해에 이어 내년 설 명절 이전에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총 114억원 규모)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상권에 활

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도 강화한다.

군은 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수막구균성 수막염·백일해·자궁경부암 등 고비용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해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역시 강화해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과 참전명예수당(월 15만원)을 인상하고, 고독사 예방 스마트 안심 서비스 등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짠다.

지역 산업의 근간인 농림축산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말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가공·유통 시설 현대화와 기계화 평지 다원 조성에 박차를 가해 보성차(茶)의 제2부흥기를 연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내 최대 생산지인 키위를 핵심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국가중요어업유산인 뱀바어



보성군이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설 명절 이전 전 군민에게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올해 지원금을 받은 주민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보성군 제공>

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벌교꼬막 리본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해양 자산의 가치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점점에 달한다.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을 지역 랜드마크로 완성하고 국내 최장 깊이의 스킨스쿠버 시설을 갖춘 ‘울포해양복합센터’와 ‘울포 프롬나드’를 연계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한다. 특히 국가어항 예비 대상항인 울포항에는 717

억원을 투입해 방파제 등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 해양 레저의 거점으로 만든다.

아울러 태백산맥 테마파크, 오봉산 생태탐방로 등 권역별 관광 자원을 하나로 잇고, 반다비체육센터와 벌교 파크골프장 조성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이밖에 군은 읍·면 균형 발전을 위해 보성·벌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 조성 제2농공단지 분양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를 동시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초심불망 마부작침(초심을 잃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자세로 군민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온 노력이 청림 4년 연속 1등급과 7천억원 재정 시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2026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보성의 모든 가능성이 하나의 확실한 성장으로 완성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여수시, ‘농식품 바우처’ 지급 대상 청년 확대

여수시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신·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대폭 확대한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약 750 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원에서 최대 18만7천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기간도 2개월 연장해 1년 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편의점 및 농협몰·남도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산 과일, 채소, 육류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26년 12월1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ARS를 통해 가능하다. 2025년 기존 수급자는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가구가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목월빵집, ‘구례밀 사용 업소’ 인증 현판식

구례군은 “최근 지역 밀 산업 육성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구례밀 사용 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올해 처음 시행된 이번 행사는 관내에서 구례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목월빵집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군은 겨울철 휴경지를 활용한 우리밀 재배가 탄소를 토양에 고정시키는 ‘흙 살리기’의 핵심이자 농가 소득 증대의 지름길로 보고 전략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구례밀 활성화를 위해 ▲빵 포장재 지원

▲수입밀과의 가격 차액 지원 ▲신제품 샘플 제공 ▲빵 축제 참가 지원 등 4개 분야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현판 보급은 소비자들이 우리밀 사용 음식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는 맑은 자연과 게르마늄 토질을 가진 우리밀 살리기의 본고장”이라며 “정직한 농부들이 생산한 건강한 구례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화순군, 노후 저수지 재해 위험 원천 차단

가수·신원·야동제 D등급 대상

2028년까지 제방 보강 등 추진

화순군이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 노후 저수지 정비를 통해 군민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나선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관내 노후 농업용 저수지 3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확정하고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한다.

정비 대상은 ▲동북면 가수저수지 ▲동면 신원저수지 ▲사평면 야동저수지 등이다.

해당 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홍수 대응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D등급’ 판정을 받아 재해위험저수지로 관리돼왔다.

1988년 축조된 동북면 가수저수지는 ‘2026년 수리시설 정비사업’ 신규 대상으로 선정돼 22억

원(도비 17억6천만원·군비 4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1990~70년대에 축조된 동면 신원저수지와 사평면 야동저수지는 ‘2026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 국비를 포함해 총 39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번 성과는 화순군이 전남도와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물로 군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제방 여유고 확보, 취수시설 보강 등 전반적인 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수지의 홍수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돼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이병철 기자

곡성군 계절근로자 90명으로 확대 ‘인력난’ 숨통

라오스 노동부·지방정부 방문

근무기간 5—8개월 연장 협의

곡성군이 농촌 인력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라오스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30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3박5일 일정으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현지 지방정부를 방문해 므앙타파발군, 툴라쿰군, 께오우룬군 등 관계지들과 만나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진》양측은 내년 도입 인원을 올해보다 늘린 90명으로 확정했다. 특히 농가 경영 안정과 근로자 소득 증대를 위해 현행 5개월인 근무 기간을 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라오스 측은 “곡성군이 도입한 ‘행정 중심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덕분에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분쟁이나 무단 이탈 사례가 거의 없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다. 실제 툴라쿰군 출신 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희망률이 90%를 넘을 정도로 현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내년 1월 현지 면접을 통해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 2026년 세계장미축제 기간에 근로자

들을 공식 초청해 문화 교류의 장도 마련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양측의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체계적인 선발과 관리로 농가는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소득을 높이는 상생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고흥군, 내년 취약계층 ‘폭염 안전망’ 강화

고흥군이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쿨루프(Cool Roof)’ 사업을 확대한다.

30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대상지로 확정돼 내년도 총사업비 3억7천만원(국비 1억8천50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폭염 등 이상 기후에 특히 취약한 노약자, 아동,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옥상과 외벽에 열 차단(차열) 페인트를 시공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지난 2025년까지 13억여원을 투입해 관내 경로당 198곳을 정비해 왔으며, 확보된 예산

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총 39곳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마다 심각해지는 폭염 속에서 군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석학 기자



담양교육지원청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63명의 수료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담양영재교육원 수료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담양교육지원청 제공>

담양교육지원청, 창의융합 인재 수료식 개최

담양교육지원청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2025년 담양영재교육원 수료식’을 개최하고 창의융합 인재 63명을 배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자연영재 48명, 발명영재 15명 등 총 63명의 수료생과 학부모 25여명이 참석했다.

담양영재교육원은 ‘함께 배우는 즐거움, 속속 커가는 창의력’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분야

의 심화 학습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협력과 소통 중심의 교육활동을 진행했다.

수료식에서는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한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감상 및 교육장상 시상도 함께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수료증을 받은 담양중학교 한 학생은 “영재교육원 과정에서 쌓은 탐구 경험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홍 교육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탐구 열정으로 1년간의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영재교육원에서 키운 창의적 사고와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